동아일보 사내보

東友

【 社是 】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제198호

발행인
김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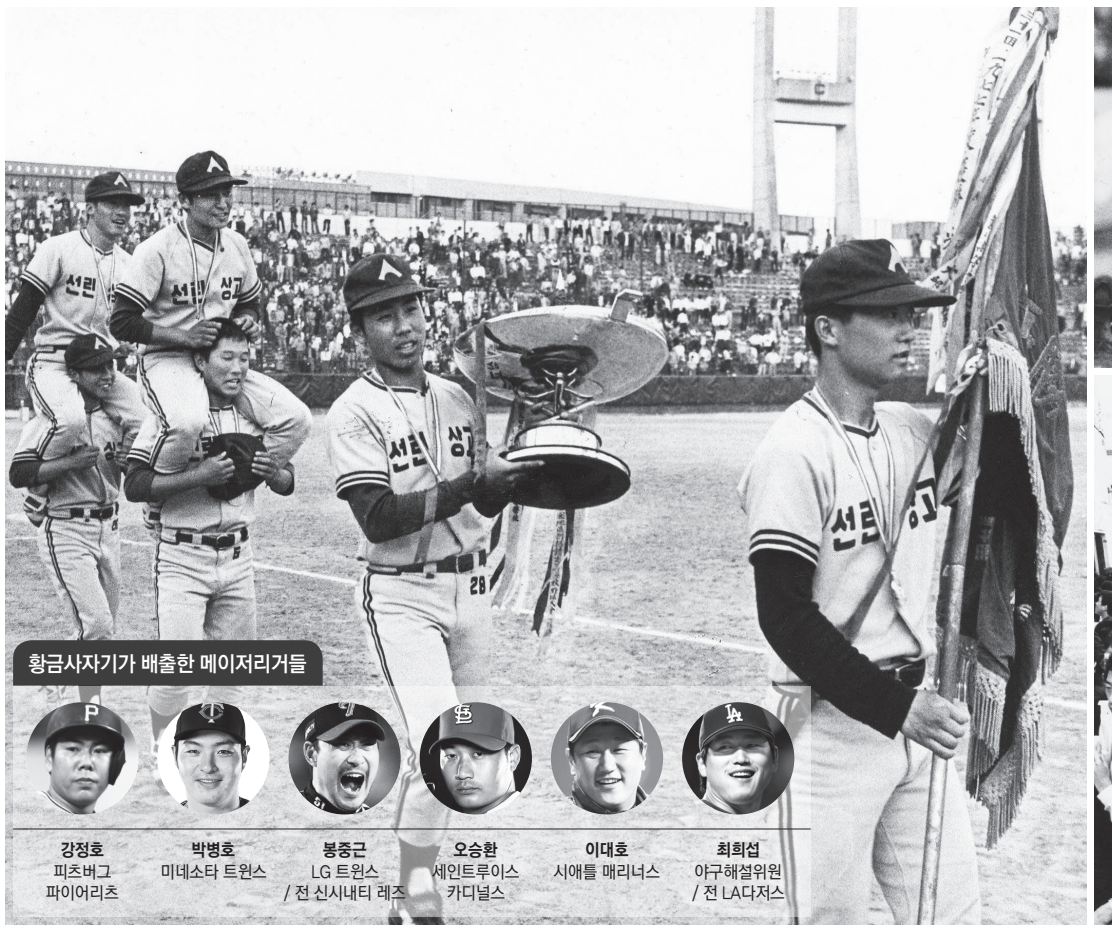
편집위원
권혜정(동아PDS)
김민지(동아E&D)
김석호(마케팅본부)
김영환(AD본부)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구희언(출판국)
박형순(동아애드넷)
빈정훈(동아MD)
안재혁(재경국)
양형모(스포츠동아)
유성열(편집국)
이정아(동아사이언스)
이종원(문화사업본부)
이태윤(동아이지에듀)
정기상(동아닷컴)
정소림(경영지원국)
조현상(동아프린테크)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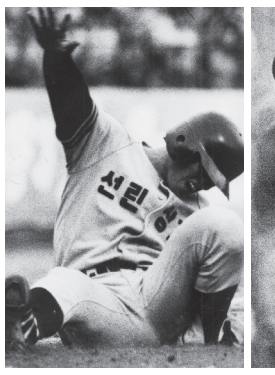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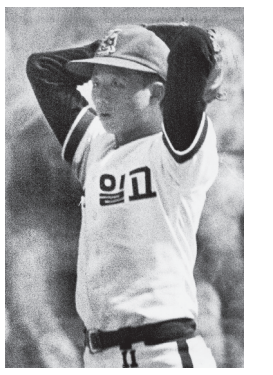
기자협회축구 또 우승
샘솟는 기운 계속됩니다

이대호 박병호 오승환 등 숱한 스타들을 배출해온 국내 최고 고교야구대회인 황금사자기가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야구 천재들에게 늘 꿈의 무대였던 이 대회는 한국 야구의 산 역사입니다. 동아일보는 한국기자협회 서울축구대회에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또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결승전까지 모든 팀을 압도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샘솟는 기운, 수습생활을 최근 멋지게 마무리한 42명의 새 가족들이 이어 가주길 기대해 봅니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1980년 10월 4일 제3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린상고 선수들이 우승기와 우승컵을 들고 경기장을 돌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2점 홈런을 쳐 우승의 주역이 된 선린상고 박노준과 아쉽게 역전패한 광주일고 선동열. 황금사자기 야구대회를 보기 위해 서울운동장으로 몰려든 2만여 명의 사람들.(시계방향)

황금사자 70년… 대한민국 야구의 산 역사

강정호 박병호 오승환 이대호 최희섭 봉중근 등 한국 야구 스타 산실…
서울 덕수고 통산 5번째 우승… OB 올스타 송진우·백인천 결승전 시구·시타로 나서

마운드에서 역투하는 이대호와 역전 홈런을 날리는 오승환. 지금으로선 좀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장면이지만 황금사자기에선 현실이었다.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강정호, 박병호, 오승환, 이대호는 황금사자기가 배출한 스타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단일 언론사가 주최하는 국내 야구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황금사자기는 이길용 전 동아일보 운동부 기자의 주도로 1947년 8월21일 오후 1시10분 처음 열렸다. 이길용 기자는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땄을 때 일장기를 말소시켜 일제 탄압에 저항한 인물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22일자에서 '학생구계(學生球界)의 호화판(豪華版)''작일(昨日, 어제) 중등야구전개막(中等野球戰開幕)'이라고 제목을 달고 '성동원두 서울운동장에서 수만 명 팬들의 열광적 환호 속에 호화로운 막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쌓인 시간만큼 황금사자기는 수많은 스타를 낳았다. 16강 경기가 한창이던 9일 목동구장을 찾은 '빅초이' 최희섭(37·전 KIA)이 대표적이다. 2층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최희섭은 "나도 딱 저 나이 때 메이저리거를 꿈꿨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광주일고 3인방(서재응, 김병현, 최희섭)의 추억도 떠올렸다. "제 기억엔 아마도 BK(김병현)가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야구 잘해서 100억 원씩만 벌고 야구 하지 말자'고. BK는 정말 그 말을 지켰었죠(웃음). 지금 생각해보면 100억 원은 그때 한국에서 야구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결국 셋은 모두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르며 광주일고의 전설이 됐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7년 최희섭은 경남고와의 황금사자기 준결승에서 홈런을 치며 광주일고를 결승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결승에서 신일고의 2년 연속 대회 우승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신일고에 안치용이랑 봉중근이 있어 우승을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봉중근은 황금사자가가 낳은 별 중의 별이었다. 신일고 1학년 시절이던 1996년 팀의 5승중 4승을 혼자 거두며 우수투수상을 거머쥐었다. 2학년이던 1997년에도 팀의 4승을 모두 이끌어 2년 연속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타격 2위(0.571)에 도루상(3개)까지 차지하며 공격, 수비, 주루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선동열, 박노준 등 한국 야구의 스타들이 모두 황금사자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였다.

황금사자기는 70년 세월 동안 한국사의 굴곡도 함께 겪었다. 황금사자기는 6·25전쟁으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중단됐다. 1956년에는 서울 운동장(동대문운동장) 확장공사로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면서 2007년 61회 대회를 끝으로 황금사자기는 한국야구의 산실인 동대문구장을 떠나 목동으로 터를 옮겼다.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마지막 황금사자기에서 장충고는 경동고, 광주일고, 덕수상고, 신일고에 이어 5번째 '황금사자기 2년 연속 우승'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장충고의 2연속 우승을 이끌었던 유영준 감독은 지금은 프로야구 NC의 스카우터로 한국 야구를 이끌 원석을 가려내고 있다. 그 후 2연속 우승팀은 9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70주년을 맞아 이번 대회 기간동안 황금사자기 홈페이지에서는 역대 황금사자기 OB(은퇴)와 YB(현역)의 포지션별 올스타를 뽑는 투표가 진행됐다. 좌완투수와 포수에서 OB 올스타로 선정된 한국야구 투타의 전설 송진우와 백인천은 17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시구와 시타를 맡았다.

제70회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는 서울 덕수고가 마산 용마고를 4대 2로 제치고 2013년에 이어 3년 만에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편집국 스포츠부 임보미

정직한 땀과 노력의 가치 가르쳐준 '서민갑부'

채널A '서민갑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방심위 "긍정적인 삶의 가치 일깨웠다" 극찬

5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채널A 이승연 제작2팀장, 공효순 PD, 박효종 방심위원장, 박앤박미디어 홍석영 PD, 김문수 작가.(왼쪽부터)

채널A 교양프로그램 '서민갑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방심위는 5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16년 3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시상식에서 지난 3월 10일 방송된 '서민갑부-개과천선 장화신은 사나이, 최대영' 편을 시상했다.

방심위는 "자수성가한 서민갑부들의 이야기는 정직한 땀과 성실한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며 "이런 성공담들이 시청자들에게 유쾌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은 방심위가 1991년 방송의 공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후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3월 10일 방송된 '서민갑부' 64회에서는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12여 년 만에 10억 자산을 일궈낸 젊은 갑부 최대영 씨(40)를 소개했다. 수산시장에서 아이스박스 배달부터 시작해 대게 소매, 대게 식당, 대게 도매업 등까지 최 씨가 주문진 수산시장의 전설이 되기까지의 피나는 노력을 담아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민갑부'를 연출하는 공효순 PD는 "서민갑부의 주인공은 편법이 아닌 정직을 무기 삼아 무일푼에서도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이라며 "서민갑부를 통해 시청자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지금까지 채널A가 수상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은 △다큐 스페셜 '눈을 떠요 아프리카'(2012. 6.) △한중수교 20주년 특별기획 '칭마에서 일주일'(2012.11.) △특별취재 탈북 1·2부(2013.3.) △먹거리X파일 100회 특집 '착한 식당을 나눠드립니다'(2014.3.) 등이다.

제작본부 제작기획팀 신호영

동아일보, 기협축구 우승… “동아미디어그룹 전체의 승리다”

‘1차전 맞상대’ 채널A,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 5년만에 우승, 통산 3승 달성

5월 14일 제44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동아일보 축구팀 선수들이 우승기를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제44회 한국기자협회 축구 서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39회 대회(2011년)에서 우승한 뒤 5년 만의 쾌거다. 이로써 동아일보는 제1회 대회(1972년)를 포함해 통산 3회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동아일보를 비롯해 채널A, 중앙일보, 조선일보, KBS, MBC 등 크고 작은 언론매체 55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한 번 패배는 곧 탈락. 동아일보는 5월 7일 두 경기를 치른 뒤, 8일 한 경기에서 승리해 8강에 올랐다. 이어 14일에는 8강-4강-결승을 두 시간 간격으로 치르는 강행군 끝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어울림누리 별무리구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에서 동아일보는 중앙일보와 맞붙어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전후반 30분 동안 득점 없이 비긴 두 팀은 연장 없이 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승부차기에서 동아일보 손용선 골키퍼는 중앙일보 2번 키커의 슛을 몸을 날려 막아냈지만 주심은 골키퍼가 휘슬이 울리기 전 먼저 움직였다면서 중앙일보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기회를 얻은 중앙일보 선수는 오히려 심적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크로스바를 맞히면서 실축했다. 기세가 오른 손 골키퍼는 3번째 키커의 슛도 막아 냈다. 동아일보 키커로 나선 김재형(사회부) 김성모(소비자경제부) 양종구(사회부) 신진우(편집국) 선수는 차분하게 슛을 성공시키면서 4대 3(PK) 승리를 견인했다.

결승전 못지않게 손에 땀을 쥐게 만든 경기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맞닥뜨린 1차전이었다. ‘얄궂은 운명’처럼 첫 경기에서 만난 두 팀은 승부 앞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동아일보가 우승하기까지 유일한 1실점이 이 경기에서 나올 정도였다. 경기는 결국 동아일보의 2대 1 승리로 끝났다.

채널A 선수단과 응원단의 실망은 잠시, 이들은 1주일 뒤 치러진 결승전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해 동아일보를 응원하면서 하나된 동아미디어그룹의 진면목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채널A 사원들은 “동아일보와 가장 치열하게 싸운 채널A가 ‘사실상 준우승’”이라는 말도 했다. 김광현 동아일보 축구단 단장(편집국 부국장)은 “이번 우승은 동아일보만의 우승이 아니라 채널A를 포함해 동아미디어그룹 전체의 승리”라고 말했다.

사내에서는 일찌감치 동아일보의 우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월부터 매주 두 차례 연습을 해오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최강의 전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김차수 편집국장의 제안으로 편집국 국장단과 전체 부·차장들이 선수들과 함께 뛴 이벤트 경기(4월 21일 효창운동장)는 동아일보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우승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이벤트 경기는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진행됐고, 여성인 신연수 부국장도 풀타임을 모두 소화했다. 경기장에 나와 꾸준히 응원해준 사원들도 큰 힘이 됐다.

우승 뒤풀이에서 선수단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김재호 사장은 “2011년 우승한 뒤 그 해 겨울에 채널A가 훌륭하게 출범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 “올 연말에도 동아미디어그룹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아일보 축구팀 김기용

동아일보가 우승하기까지 승리한 상대팀들

첫 경기	32강전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
동아일보 : 채널A 2 : 1	동아일보 : 연합뉴스 2 : 0	동아일보 : 뉴스토마토 1 : 0	동아일보 : 서울경제 0 : 0 (PK 4:2)	동아일보 : 아주경제 2 : 0	동아일보 : 중앙일보 0 : 0 (PK 4:3)

사진으로 보는 결승전… 승리의 드라마

1

3

4

5

2

6

7

1. 걷어차이고…
2. 헤딩도 날리고…
3. 대포같은 슛에도 열리지 않은 골문
4. 애타는 동아 응원단
5. 몸을 날려 막아내는 손용선 골키퍼
6. 우승의 기쁨… 편집국장 헹가래
7. PK 4대3 승리하자 환호하는 응원단

돌고 또 돈 수습생활… 이제 '참된 동아人'으로 뛰겠습니다

42명! 동아미디어그룹 역사상 가장 많은 동기를 갖게 된 2015년 하반기 입사자들이 6개월 수습기간을 마쳤다. 지난해 9월 입사한 DNA 인턴 채용전환 수습기자·PD들이 동기들 가운데 처음으로 3월 초 면수습 테이프를 끊었고, 5월 9일에는 수습공채로 입사한 기자·PD들이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면수습 사령장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입사한 미디어경영직 수습 매니저들은 6월 7일 면수습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지난 수습기간을 되돌아보며 '면수습기'를 동우지에 전해왔다. 눈물 없이는 읽기 힘든 수습의 애환,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선후배간의 훈훈한 미담, 수습기간 다져진 각오와 다짐이 담긴 면수습기를 공개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42명 동기… 2015 하반기 입사자들의 면수습기

"졸다가 선배 전화에 놀라 발가락 골절"

신문기자

이 이야기는 동아미디어그룹 수습기자 16명의 '눈(目)'에 관한 이야기다.

눈에 최루액이 들어갔던 지난해 11월 어느 날, 수습은 맞았다.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날이었다. 수습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어 넘어뜨리는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복면을 쓴 남성 둘이 수습의 팔짱을 끼더니 버스 뒤쪽으로 끌고 가 때리기 시작했다. "동영상 지워!" 사원증도 빼앗겼다. 최루액 때문에 눈이 시큰거렸다. 동기들보다 두 달 먼저 수습을 마친 강성휘 기자는 새 사원증을 받았고, 배짱이 두둑해졌으며, 최근 사회 1면 톱기사를 썼다.

눈이 스르륵 감겼던 12월 어느 날, 수습은 아팠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편두통을 느꼈다. 야간 보고를 앞둔 시각, 기절할 듯한 고통에 선배에게 말했다. "응급실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통제와 수액을 맞았다. 서러웠다. 애인이 병문안을 왔다. 30분쯤 앉아 있더니 "피곤하다"며 가겠다고 했다. '이 자식, 뭐지?' 혼자 응급실에 3시간쯤 누워 있었다. 당직을 마치고 찾아온 선배 손에는 오렌지주스가 들려있었다. 이날은 수습의 생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름이 남자 같은 이지훈 기자는 '그 자식'과 이별했다. 눈에 선배 이름 석자가 보였던 1월 어느 날, 수습은 다쳤다. 지친 몸을 경찰서 기자실에 누이고 잠시, 정말 잠시 눈을 붙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선배의 이름이 떴다. 번쩍 잠에서 깨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뚝! 문에 부딪힌 발에서 소리가 났다. 발에 깁스를 한 채로 6주 동안 경찰서를 누볐다. 이를 불쌍히 여긴 경찰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어느새 5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내 발가락은 쿡쿡 쑤시지만, 오늘 나는 첫 단독 바이라인을 올렸다.

편집국 사회부 노지원 기자

"멀티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

방송기자

'사령장. 임 수습사원. 명 보도본부 근무'

지난해 11월 9일. '동아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는' 수습기자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지난 6개월의 수습기자 생활을 떠올리면 가수 전인권의 노래 '돌고 돌고 돌고'가 머릿속을 맴돈다.

첫 번째 '돌고'는 신문기자의 삶이다. 교차근무를 통해 편집국에서 일하면서 디테일이 가진 힘을 실감했다. 조목조목 따지고 두 번 세 번 확인해 얻은 사실들을 연결해, 지면 위에 그림을 그려내는 편집국 선배들은 디테일한 취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두 번째 '돌고'는, 4·13 총선보도 태스크포스(TF) 기자의 삶이다. 이곳에서 나는 방송의 숙명은 '협업'임을 배웠다. 기자와 PD부터 작가와 그래픽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영역은 존중하되, 서로가 가진 역량이 시너지를 내도록 조율하는 일에 총선보도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 내 업무는 여론조사 발표를 취합하고, 총선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며, 총선 당일 개표 결과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돌고'는, 신문과 방송을 넘나드는 동아미디어그룹 기자의 삶이다. 수습기간 내가 경험한 통합뉴스룸은 신방겸영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직이었다. 방송기자였지만 편집국 근무를 자처한 선배가 '영상의 제약'을 벗어나 기사를 쓰는 모습, 신문기자에서 방송기자로 변신한 선배가 카메라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을 보며 막내 기자인 나도 '멀티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한다.

돌고, 돌고 또 돌았던 수습 생활은 끝났다. 하지만 수습기간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은 앞으로도 간직하려 한다. '수습 때처럼만 하면 된다'는 선배의 진심 어린 조언을 기억한 채로 말이다.

보도본부 사회부 최주현 기자

"수습기간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PD

"사람이 된 걸 축하한다." 면수습 이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었다.

'돌직구 쇼+'에 투입된 서민지 PD는 매일 새벽 5시 광화문 사옥의 불을 밝혔다. 개편을 앞두고는 클로징 음악을 고르고, 세트 단장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람됨'을 증명하려 했다.

면수습 직전 '개밥 주는 남자'에 합류한 임성용 PD는 '강아지들의 도움'을 받아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궁디캠'이라는 웹 콘텐츠를 만들어 수십만 건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아내가 뿔났다' 시즌3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나는 '토끼굴'로 불리는 편집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사람으로 거듭날 준비를 했다. 선배들과의 편집실 동고동락을 통해 PD는 곧 '사람'과 협업하는 일임을 배웠다.

한지인 PD는 일찍이 '먹거리 X파일'에서 사람됨을 경험했다. '착한 두부'편에 출연한 딸의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 "네가 만든 방송 잘 봤다"는 말을 해주셨을 때, 그는 자신이 PD가 됐음을 실감했다.

사람이 되기 전 마지막 관문은 보도본부 교차교육이었다. 사건팀에 배치돼 상암동 편집실 대신 서울 각지의 경찰서로 출근했다. 잠입취재에 투입된 박성완 PD는 남다른 몰래 카메라 촬영 실력을 활용해 취재를 도우며 그간의 배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수습 PD들은 면수습에 즈음해 선배들에게 일명 'PD 박스'를 선물로 받았다. 상자 안에는 수습기간에 찍은 수습 PD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피곤하고 초췌해 보이지만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 '사람 냄새' 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선배들의 마음이었다.

제작본부 제작2팀 문영석 PD

"동아의 기대와 응원 저버리지 않을 것"

미디어경영

입사 합격의 기쁨과 처음 받아보는 교육의 재미로 적어도 첫 한 달은 즐거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사회 초년병들에게 업무 e메일을 보내는 방법부터,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는 심리검사, 영업·마케팅사원이 갖춰야 할 비즈니스 매너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교육으로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이다.

42명의 수습 매니저, 기자, PD 동기들이 함께했던 제주도 워크숍은 행복한 기억의 절정이었다. 동아미디어그룹 내 다양한 직무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각자 맡은 업무가 촘촘하게 연결돼 시너지를 높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였다. 제주의 숲길을 걸으며 동기애를 다지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러나 AD본부에서의 삶은 좌충우돌이었다. 전쟁터에서 총을 잃어버린 이등병과 다를 바 없었다. 부서 분위기를 익혀야 했고, 광고시장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 적응해야 했다. 외근을 위해 급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고, 차량을 구입한지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에 실망한 날도 적지 않았다. 자책의 시간을 보낼 때 선배가 해준 말이 아직도 머리 속을 맴돈다. "당장의 실적을 바라고 너를 내보내는 게 아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실패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후배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선배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 자기 몫을 똑 부러지게 해내는 동기 매니저들의 이야기에 나 역시 분발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수습기간은 미숙한 내게 회사와 선배들이 아낌없이 가르치고 조건 없이 투자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대와 응원을 저버리지 않는 동아의 일원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경영지원국 권솔 매니저

채널A '오늘부터 대학생' 대학축제 주점 이벤트 성황리에 열려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동아미디어센터 오픈스튜디오 앞에서 '오대(오늘부터 대학생) 주점'이 열렸다. '오대주점'은 채널A 신규 예능프로그램 '오늘부터 대학생'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로 대학축제의 주점 콘셉트로 진행됐다. 채널A 브랜드마케팅팀은 채널A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른 시민들에게 바바리안 무알콜 맥주와 홍보 스티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시민 천 여명이 다녀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읽기 편하고, 개성 넘치고… DBR 200호, 확 바뀌었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의 고품격 경영 콘텐츠 DBR이 5월 통권 200호 발행을 맞아 지면 혁신을 단행했다. 지면 혁신의 핵심은 경영 실무 현장에서 DBR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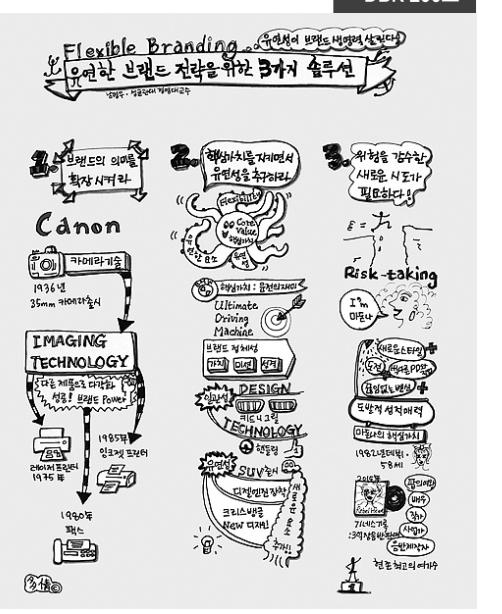
우선 딱딱한 경영 아티클을 흥미로운 비주얼로 소개하는 'Visual Thinker's Visual Note-Taking'이 눈에 띈다.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기'를 통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매호 정다정 메디데이터코리아 이사가 과거 아티클의 핵심을 개성 넘치는 그림으로 요약해 보여준다.

주요 아티클 마지막 부분에 '생각해볼 문제' 코너를 신설했다. 독자들이 아티클에서 얻은 지식을 각종 사례에 직접 적용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나열했다. 독자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9.2에서 9.35포인트로 확대했고, 행간과 여백 역시 이전 호에 비해 넓혔다. 눈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빛의 반사와 비침이 덜한 용지로 개선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서현

* DBR 200호



DBR 200호를 맞아 새롭게 선보인 'Visual Thinker's Visual Note-Taking'섹션. '유연한 브랜드 전략을 위한 3가지 솔루션'이라는 아티클을 비주얼로 소개했다.

채널A 우수콘텐츠 해외로 해외로… 뜨거웠던 부산콘텐츠 마켓

5월 11일~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채널A 홍보부스. 신규 예능프로그램 '오늘부터 대학생'과 '개밥주는 남자' 등의 대형 포스터가 붙어있다(왼쪽). 글로벌비즈니스팀 이유진 매니저가 베트남 바이어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오른쪽).

5월 11일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채널A 홍보부스. 문을 열자마자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미국 최대 온오프라인 영상 제공 업체 넷플릭스(Netflix)의 남성 바이어는 '개밥 주는 남자(개밥남)' 영상을 보며 "정말 귀엽다(So cute)!"를 연발했다. 자신도 '비숑프리제'를 키우고 있다며 '개밥남'에 흠뻑 빠졌다.

베트남 여성 바이어들은 채널A 부스에서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 7살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빠의 비밀' 예고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7살 어린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여성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다.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콘텐츠마켓(BCM) 2016'은 세계적으로 채널A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리였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BCM은 세계 45개국, 554개 방송·콘텐츠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한류에 힘입어 아시아권 바이어들이 대거 몰렸다.

이번 마켓에서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신규 예능 프로그램 '오늘부터 대학생'. 대학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늦깎이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기라는 신선한 소재가 인기의 핵심이다. 특히 중국 바이어들은 중국의 젊은 시청자들에게 호응이 클 것이란 생각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중국위성TV 방송국 관계자는 "중국판 '오늘부터 대학생'을 공동 제작하고 싶을 정도"라며 "스타가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학교를 다닌다는 콘셉트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았다. 베트남의 한 방송국은 채널A 드라마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국 지역 방송국 관계자는 올해 종영한 '머슴아들'에 관심을 보이며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포맷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글로벌비지니스팀은 BCM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 시장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6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16 차이나포맷'에 참석하고, 8월 말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송 견본시(BCWW 2016)에 참가해 채널A의 우수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글로벌비즈니스팀 이유진
경영전략실 글로벌비즈니스팀 이승민

미디어텍, 유명 기획사 FNC 아카데미와 업무협약
인재발굴-콘텐츠사업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FNC아카데미 고광일 대표(왼쪽)와 채널A미디어텍 박정열 대표.

채널A미디어텍이 FNC아카데미와 5월 11일 방송 제작 인력 육성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송인 유재석이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FNC아카데미는 씨엔블루, AOA 등 인기 아이돌을 발굴, 양성해왔다.

이 협약을 통해 채널A미디어텍과 FNC아카데미는 서울 마포구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에서 △엔터테이너 아카데미 사업을 통한 인재 발굴과 양성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가치 사업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열 대표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

방송말 바루기

라면이 불다(X) 라면이 분다(O)

'라면이 불다?'

이 문장은 틀리다. '라면이 분다'라고 해야 한다.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는 의미의 동사를 '불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분다'가 기본형이다. '라면이 불기 전에 먹어라' '국수가 불고 말았다'에서 '불기'와 '불고'는 '분기'와 '분고'로 써야 한다.

'분다'에 어미 '-지'가 붙으면 '분지'로 활용되나 '-은'이 붙으면 '불은(분+은)'으로 바뀌는 ㄷ불규칙활용을 한다. 자음 앞에선 받침이 안 바뀌고 그대로 ㄷ을 쓴다. '분고·분는·분지 / 불으면·불은·불어·불으니'로 활용된다. '콩이 분다 / 라면이 불어서 맛이 없다'처럼 쓰인다. '분다'엔 '강물이 분다 / 체중이 분다 / 살림이 분다'와 같이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는 뜻도 있다. '몸이 많이 불었다 / 체중이 불어 걱정이다' 등처럼 활용된다.

동사 '분다' '불다' '붓다'는 헷갈리기 쉽다. '불다'는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 유행, 풍조 따위가 일어나 휩쓸다 / 입을 오므리고 입김을 내다 / 비밀을 사실대로 털어놓다'라는 뜻이 있다. '풍선을 불다 / 사내에 인사 태풍이 불어 닥쳤다 / 유리창에 입김을 불다 / 네 죄를 숨김없이 불어라'처럼 활용된다.

'붓다'는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 불입금, 곗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 /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 속되게 성이 나서 뾰로통해지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잔에 술을 붓다 / 은행에 적금을 붓다 / 얼굴이 붓다 / 아이가 장난감을 안 사 준다고 잔뜩 부어 있다'처럼 쓰인다.

심의실 심의팀 김용길

東友는 몸神이다

숨은 키 찾는 두루마리 화장지 운동법

평상시 잘못된 자세는 무릎, 골반, 척추, 목의 관절을 틀어지게 해 거북목, 척추 측만증, 디스크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교정 운동법 등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찾는 것만으로도 숨은 키를 찾고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숨은 키를 찾아주는 두루마리 화장지 운동법은 무릎과 골반의 근육을 사용하여 휜 다리가 교정되는 효과가 있으며 척추를 곧게 펴주어 숨은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발목과 무릎에 하나씩 끼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5분간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은 발끝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어깨를 날개 뼈가 가운데 붙을 정도로 힘을 주어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5분간 반복합니다. 한번에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이 불편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자세한 운동법을 익히려면 동영상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활용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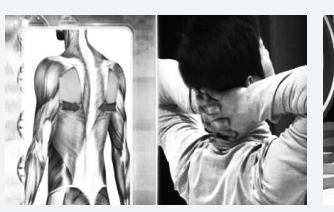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① 발목과 무릎사이에 두루마리 휴지를 각각 1개씩 끼운다.

② 양팔을 쭉 뻗고 무릎을 굽히며 90도로 앉는다. 무릎은 엄지발가락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무릎을 펴고 일어나갔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5분간 반복한다.

④ 5분 동작이 끝나면 깍지를 껴 머리를 받친 다음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며 어깨를 뒤로 젖혀준다.



⑤ 팔을 뒤로 당길 때 양쪽 날개뼈가 안쪽으로 모이듯 최대한 힘을 준다.

⑥ 발뒤꿈치를 내리며 어깨를 다시 앞으로 젖혀준다. 이 동작을 5분간 반복해준다.